

News

3월 말 은행 대출 연체율 0.22%...전월 대비 0.03%p 하락

이투데이

올해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0.22%로 전월말대비 0.03%p 하락… 신규연체 발생액 8,000억원은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 수치 기업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비 0.30% 대비 0.04%p 하락…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17%로 전월말대비 0.03%p 하락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초읽기…'DSR규제 우회' 방안으로 급부상

서울파이낸스

금융당국,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담대를 50년에 걸쳐 나눠 갚는 '만기 50년 정책모기지' 도입 검토… 만기 40년 정책모기지 상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기 때문에 DSR 골격 유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출규제 완화 꾀할 수 있어… 초장기 상품 원하는 수요 적지 않고 우회로 통한 방안인 만큼 조만간 40년이던 만기 늘리는 수순 예상

당국 '자본 확충' 요청에…신한 자사주 매입 고민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 최근 금융당국과 자사주 매입 관련 논의… 그 중 2019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의 전환 우선주 인수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는 신한금융의 보통주 주식수 증가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 주가 부양 위해서는 주식 주 줄여야 하는데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 우회적 제동

가계대출 넘어선 기업대출…금융지원 종료 이후 '시한폭탄' 되나

시사저널이코노미

1분기 4대 시중은행 기업대출 규모가 가계대출 넘어서… 기업대출 잔액은 총 572조 3,9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 작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둔화된 점 때문… 다만 오는 9월 코로나19관련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잠재부실 위험 우려

4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월대비 급증…코로나 반사이익 이제 끝났나

파이낸셜뉴스

4월 자동차보험 가입계 마친 11개 손보사들의 평균 손해율이 전월비 평균 9.1%p 높아진 82.3% 기록… 전년동기대비 평균 1.0%p 낮아졌으나 비슷한 수준 손해율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롯데손보로 4월 83.1%, 전월비 20%p 상승…4월에는 전월대비 고속도로 통행량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주말 여행 증가 영향

4년 새 27조 늘어난 보험사 중기대출…부실화 '신호탄' 되나

아주경제

보험사들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이 4년새 30조원 가까이 증가… 총 90조 2,357억원에 달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과 대기업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 대비 가파른 증가세 삼성생명의 중소기업대출액은 13조 7,620억원으로 3조 7,000억원 이상 증가…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9조 1,862억원 증가… 금융사 수익적 측면 때문

두나무 임시주총 열고 '자사주 매입' 나선다

조선비즈

두나무, 31일 임시 주주총회 열고 자사주매입에 나설 예정… 이번 안결 통과되면 보통주 26만 4,000주 매입 취급가액 총 1,056억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 가능… 사측은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 설명

NH·하나證, 해외 현지화 속도…업계 주식 서비스 강화

데일리안

증권사들, 국내 증시 리스크 분산 위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 현지법인 출범을 통해 다양한 IB딜 소싱해 국내 투자자 공급 및 글로벌 허브 육성 계획 해외주식 서비스 강화에도 나서…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미국 주식 호가와 잔량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미국주식 토탈뷰 서비스'를 지난 16일부터 제공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